III 요약 및 시사점

○ 보험회사 CEO들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급격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며, 경제환경 변동성 확대가 IFRS17과 K-ICS 등 신제도 도입 결과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함

-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위협이 단기적 현상이며 시중금리 상승 또한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가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응답함
- IFRS17과 K-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전년에 비해 진전되었으며, 인플레이션, 금리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가 제도 도입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CEO가 많았으나 도입 이후에는 경제환경 변동성 확대가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함

○ 보험회사 CEO들은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과 사업구조 개편,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였으며, 디지털전략의 중요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(1200% 룰)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음

- 손해보험회사 CEO들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, 런오프,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 CEO들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CEO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회사의 대응수준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
-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(예산, 인력 등)에 대다수의 CEO들이 중요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,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(1200% 룰)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음

○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력상품 전략은 전년도 설문 대비 연금보험과 변액보험,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하였고, 신사업영역으로는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 비중이 높았으며, 2022~2023년 중 우선순위 분야로는 작년 대비 판매채널 경쟁력과 신제도 대응 비중이 상승함

-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력상품 전략은 지난 설문과 마찬가지로 각각 보장성보험, 장기인보험 비중이 높았으나, 생명보험의 경우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이 확대되었고, 손해보험은 장기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함
- 신사업영역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,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 비중이 높았으나 종합금융서비스와 기타의견이 확대되었고, 2022~2023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, IFRS17 및 K-ICS 선제적 대응 비중이 확대됨

○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 CEO들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2023년 예정된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전년에 비해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며,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임

-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고금리, 저성장 환경이라는 부정적인 여건에서 보험회사는 성장성 및 수익성 유지를 위한 상품 전략, 판매채널 전략, 보험금 누수 억제, 사업비 관리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
- 한편 IFRS17 및 K-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은 경제적 가정 및 계리적 가정 변동을 통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으며, 보험회사의 전략 운용에 있어 선택지를 좁히는 제약조건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
- 보험산업은 디지털화, 신사업 영역 확대, ESG대응 등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에 다가올 다양한 불확실성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할 것임